

1100만 돌파 '명량' 열풍...전남 촬영 세트장 각광

완도 청해포구 등 7곳 지난해 영화·드라마 25편 촬영

영화의 감동 느끼려는 관광객들 세트장 방문 줄이어

대박 영화의 출연과 함께 주요 촬영지가 된 완도 청해포구 등 전남지역의 주요 드라마 세트장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2·1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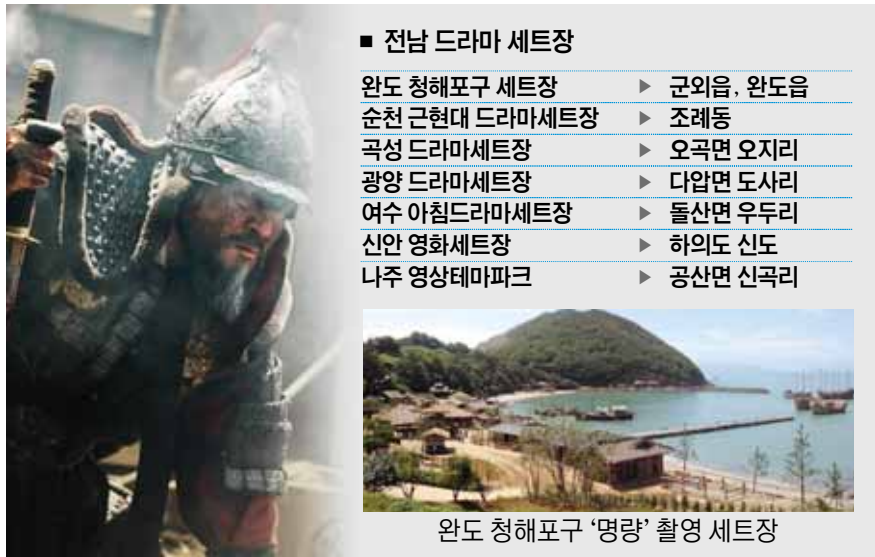
지난 2003~2005년 고대·중세, 근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영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남지역 곳곳에 들어섰던 드라마세트장은 이후 운영자에게 시달리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그러나 최근 촬영 건수가 늘어나고, 우리나라 영화사를 새로 쓰고 있는 '명량' 열풍이 불면서 다시 관광객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에서 촬영된 영화와 드라마는 지난 2004년 26편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7년 15편, 2008년 17편 등으로 하락세를 보다가 지난해 25편으로 다시 상승세를 탔다. 11월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내 드라마세

트장은 여수·순천·나주·광양·완도·곡성·신안 등 7곳에 조성돼 있다. 역대 최단기간 1100만 관객을 넘어선 명량의 주 촬영지인 완도 청해포구 드라마세트장은 완도군이 지난해 2004년 180억원을 들여 조성된 뒤 협약에 따라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완도 청해포구 드라마세트장에서 '명량'의 주요 명장면인 왜군부대 출정식, 군함정박 선착장 전투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저잣거리 등이 촬영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중 700여명, 주말 1000여 명의 방문객들이 세트장을 찾고 있다는 것이 운영업체의 설명이다.

이 세트장은 최근에 개봉한 김민길, 손예진 주연의 '해적(바다로 간 산적)'의 무대가 되기도 했으며, 매년 10여 편의 드라마와 영화가 제작되면서 우리나라 드라



완도 청해포구 '명량' 촬영 세트장

■ 전남 드라마 세트장

완도 청해포구 세트장	▶ 군의음, 완도읍
순천 근현대 드라마세트장	▶ 조래동
곡성 드라마세트장	▶ 오곡면 오지리
광양 드라마세트장	▶ 다압면 도시리
여수 아침드라마세트장	▶ 돌산면 우두리
신안 영화세트장	▶ 하의도 신도
나주 영상테마파크	▶ 공산면 신곡리



완도 청해포구 '명량' 촬영 세트장

마·영화의 '산실'로 불리고 있다.

청해포구 드라마세트장 황수연 실장은 "입장료와 임대수익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이 가능하다"며 "업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이제는 알아서 찾아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 KBS드라마 '해산' 촬영을 위해 건립된 뒤 드라마 태왕사신기, 대조영, 주몽, 추노, 정도전 등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근대사까지 넘나드는 역사드라

마와 영화가 촬영됐다.

1960·70년대 거리를 재현해놓은 순천 드라마세트장도 배우 하정우가 감독하는 영화 '허삼관 매형기' 촬영이 한창으로, 올해 영화 3편, 단편 및 장편 드라마 제작팀이 예약해둔 상태다. 하루 24시간 기준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최근 연 3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06년 이후 주춤했으나 2010년 '복고풍'이 불면서 연간 3~4개의 영화·드라마가 꾸준히 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나주 영상테마파크 등 상당수 세트장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인건비, 보수유지비 등으로 매년 역대의 예산이 소요되면서 유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트장을 구조조정하고, 경기도나 부산 등과 같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에서 연장 접전 끝에 우승한 이미림이 챔피언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의 딸' 이미림 LPGA 신데렐라 '여왕' 박인비 꺾고 첫 우승

'광주의 딸' 이미림(24·우리투자증권)이 한국 여자골프의 에이스 박인비(26·KB금융그룹)를 연장전에서 따돌리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안았다.

〈관련기사 20면〉

이미림은 11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래피즈의 블라이드필드 골프장(파 71, 6414야드)에서 열린 마이어 LPGA 클래식(총상금 150만 달러)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연타파 69타를 쳤다. 박인비에 한 타 뒤진 단독 2위로 4라운드를 시작한 그는 이날 한 타를 줄인 데 그친 박인비와 최종합계 14연타파 270타로 동타를 이뤄 연장전에 돌입, 연장 두 번째 홀에서 승리해 대회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이미림은 광주 출신으로 무등초와 문화중학교를 다녔다. 초등학교 4학년때 아버지의 권유로 골프에 입문해 중학교 3학년때 국가대표선비군으로 발탁됐고, 이듬해 광주 첫 여자골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이미림은 2010년 KLPGA 투어에서 뛰기 시작한 2012년 메이저대회인 한국여자오픈을 포함해 국내에서 통산 3승을 거뒀다. 지난해 켈리파인스 컵을 통해 올 시즌 LPGA 투어 출전권을 딴 그는 데뷔 첫해 14개 대회 만에 우승을 맛보며 LPGA 투어 한국군단의 새로운 단크호스로 떠올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지하철 또 고장 출근길 수백명 대피

과전류 발생이 원인... "안전 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

개통 10년째를 맞은 광주지하철이 고장으로 울어들어 두 차례나 멈춰서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고 발생 후 안내 방송 등도 소홀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전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출근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한 시민 수백명이 큰 불편을 겪었지만 광주도시철도공사측은 사고 당시 CCTV 공개를 거부하고, 사고 상황 설명도 잇달리는 등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여 반목을 사고 있다.

11일 광주시와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1분께 광주 서구 돌고개역 인근 철로에서 광주 도시철도 1022호

호가 고장을 일으켰다. 평동에서 소태 방향 상행선을 달리던 지하철이 이상을 보이면서 후속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역인 양동시장역에서 쌍춘역까지 모두 5개 역의 전기공급이 중단됐으며, 뒤따르던 전동차 6대도 멈춰섰다. 광주 지하철은 노선이 1개뿐이어서 1대가 고장을 일으키면 다른 전동차도 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고장은 전동차 위(옥상)에 설치된 고압케이블 불량에 따른 과전류 발생이 주원인으로, 49분간 전동차 운행이 지연됐다.

광주도시철도공사측은 고장난 1022호를 비롯한 각 전동차를 주변 역에 정차시켜 모든 역의 승객들에게 "전동차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됐으니 하차해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바란다"는 안내방송을 했다. 입장이지만, 일부 역의 승객은 들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모씨는 광주도시철도공사 계시판에 "화정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데 오지 않아 다른 교통편을 이용했다. 안내방송도 없었고 환불도 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불안해" 11일 오후 광주시 서구 농성 지하철역에 도착한 전동차에서 시민들이 내리고 있다. 이날 오전 서구 돌고개역 인근 철로에서 발생한 전동차 고장에 따른 운행 중단으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제기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또 사고 발생시 승강장에 역무원이 배치돼 있었다고 밝혔지만, 승객들 중에선 사고 초기 역무원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사고 당시 상황 설명도 잇달리면서 축소·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김진수 광주도시철도공사 팀장은 이날 "사고 당시 역무원이 전동차 문을 직접 열었다"고 했지만, 박현철 돌고개역장은

"문이 열린 상태에서 단전돼 승객들이 스스로 밖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이 같이 잇달린 주장의 확인을 위해 CCTV 녹화자료를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승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공개할 수는 없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광주지하철이 고장을 일으킨 것은 올해에 만 두 번째로, 일부에서는 운행기간이 10년을 넘어서면서 고장 주기가 짧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4월 16일 광산구

도산역에서 전동차 바퀴 부근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52분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시민 김민식(48)씨는 "세월호 사고를 비롯한 광주도심 헬기 추락 등 각종 대형 사고가 이어지면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겁이 날 정도"라면서 "대중교통만큼이라도 철저한 안전진단과 점검을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실용음악학과 정기공연"
일시: 10월 6일(월) 오후 7시30분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신대학교 062)605-0956

NEW
수분감신기능성
사용여유한면도

한울
올려원액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바로 오늘이어야 하니까

갈색 솔잎 에너지로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한울 올려원액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항상 과거에만 있나요?
기존 대비 3.8배* 농축된 갈색 솔잎 추출물을 담아 세로위진 한울 올려원액을 만나보세요!
갈색 솔잎 추출물이 무더진 피부를 깨끗하고 피부 속 깊이 촉촉한 생기를 전달하니까-
맑고 생생한 피부를 가진 오늘이 당신의 가장 예쁜 날이에요.

*100% 갈색 솔잎 추출물 함유율 300배 이상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를 위한 5가지 피부 개선효과

1. 피부가 촉촉하게 재워지는 느낌이다	100%	2. 피부가 부드럽고 매끄러워졌다	99%
3. 윤기가 더해져 탄력 있어 보이는 것 같다	99%	4. 피부가 맑아진 느낌이다	99%
5. 단아하게 아름다워진 느낌이다	98%		

*100% 갈색 솔잎 추출물 함유율 300배 이상, 300배 이상, 300배 이상, 300배 이상